대전디자인진흥원, AI·트램 연계 도시디자인 발전 방안 논의

박소영 기자 | 승인 2026.11.18 18:06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공디자인과 도시철도 트램을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 등 대전의 도시디자인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지난 17일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2026 대전 디자인 공감 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디자인진흥원과 대전디자인기업협회, 대전디자인발전교수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공공기관과 디자인기업, 대학·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공디자인과 도시철도 트램을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 등 대전의 도시디자인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 대전디자인진흥원 제공

◆ AI 활용·트램 관광 연계 등 도시디자인 발전 방향 모색

기조강연에 나선 안장원 이음파트너스 대표는 대전의 고유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박혜은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연구센터장은 AI 플랫폼을 활용한 도시디자인 컨설팅의 가능성을 소개했으며, 박창후 대전디자인기업협회장은 트램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 방향을 발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도시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AI 기반 공공디자인 활용, 트램 중심의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지역 자원을 디자인에 접목하고, 이를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 디자인산업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은 대전시와 함께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디자인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및 디자인 전문기업과 협력해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재준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은 "이번 포럼은 도시브랜드와 AI, 관광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의 역할과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전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